아프리카의 聖女 루실 仁術로 총칼을 녹이다

아프리카 내사랑
미셸 아르스노 지음 | 이재형 옮김 | 들녘 | 1만1800원

내전중이던 우간다에서 35년간 의술 펼친 캐나다 출신 외과의사 부부의 다큐멘터리

"자신이 망설이고 있다는 걸 환자가 눈치채게 하는 건 아무 쓸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끔찍한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아프리카의 테레사 수녀'로 비유되는 캐나다 출신의 외과의사 루실 티즈데일(1929~1996)이 남긴 말이다. 그녀는 여성의 사회진출은 물론이요, 사회적 지위 보장 역시 척박했던 현실 속에서도 의학을 그것도 외과를 선택해 아프리카의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냈다. 미국은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의 의술을 의심하고 거부했지만 아프리카는 그녀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전부를 불태웠다.

치료중 에이즈에 감염되고도 죽는 날까지 '헌신'으로 일관

직접 자신의 손을 넣어가며 병든 군인들 몸의 뼛조각을 필사적으로 꺼냈던 루실은 결국 에이즈(AIDS)에 감염됐지만, 2년 뒤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25퍼센트의 가능성을 믿고 죽는 날까지 정상적으로 의술을 행했다. 35년 동안(1961~96) 우간다 라코어 병원에서 하루에 평균 두 번씩, 큰 수술만 2만 건 이상을 행했던 루실은 결국 그 공로를 인정받아 남편인 피에로(1925~2003)와 함께 1986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수여하는 '사사카와 상'(료이치 사사카와는 '일본 조선산업 재단'의 회장으로, 1950년 이후 천연두 박멸 사업에 120억 달러를 기부한 독지가)의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프리카 내사랑>은 버림받은 땅 아프리카를 자신의 조국보다 더 사랑하며 '헌신'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준 외과의사 루실 티즈데일과 피에로 코르티 부부의 휴먼 다큐멘터리다. 이 책에서는 내전과 에이즈로 병든 우간다에서 정부군과 반군에 의해 협박당하고 의약품과 생활필수품 등을 약탈당하는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병원을 세워 헌신을 다했던 아름다운 의사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펼쳐진다. 이들은 환자를 머리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가슴으로 치료 했다는 점때문에 남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루실의 우간다행은 "나랑 같이 우간다에 가지 않겠어요?"라는 동료 의사이자 남편인 피에로의 프로포즈에 이끌려 비롯됐다. 처음에는 '우연한 선택'이었지만 나중에는 '결연한 의지'로 바뀌었던 아프리카에서 루실의 삶은 한마디로 전쟁 그 자체였다. 총상으로 실려온 군인, 제왕절개 해야할 산모, 이질에 걸린 아이, 에이즈에 걸린 여인들 등 모두 하나같이 만만찮은 환자들이 그의 주 고객이었다. 어떤 날은 하루에 325명을 진찰할 정도로 그녀의 병원은 환자들로 항상 북적 거렸다. 아마도 그녀곁에 영혼의 동반자였던 남편 피에로가 24시간 내내 버팀목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다고 밝힐 만큼 힘들고 고된 일이었다. 특히 내전으로 루실의 라코어 병원이 밤낮으로 바뀐 정규

▲우간다 라코어병원에서 수술중인 루실.

◀수습간호사들과 환자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루실(왼쪽에서 두번째)과 피에르.

군과 반군의 약탈 대상이 되었을 땐, 널리 인술을 펼치겠다는 이상이 끊임없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도 생명 존중에 대한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80년대말 우간다 인구 1700만명 가운데 15만명 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될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치료를 계속해 나갔다. 그리고 그녀도 결국 치료중 에이즈에 감염됐다. 그를 찾아오는 무수한 에이즈 환자들은 루실 또한 병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란 걸 매번 깨우쳐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때때로 내가 에이즈가 아닌 유방암과 싸우고 있었다면 과연 사람들이 나에게 이처럼 환호를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고백했을 정도로 일에 미쳐 생각지 못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라코어 병원을 거쳐간 무수한 아프리카의 환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것이 바로 이 책의 두 주인공들이 세계 인류를 위해 의학적으로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우간다 사람들에게 슈바이쳐 박사 못지 않은 위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유다. 그래서 캐나다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미셸 아르노스가 쓴 이 책을 감히 전기(傳記)라고 평하고 싶을 정도로 이들 부부의 삶의 궤적이 감동스럽다. 갑자기 다가온 더위로 삶의 권태를 느끼기 쉬운 요즘, 이 책은 한번 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바짝 긴장시켜 주는 묘미를 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 새로 쓰는 가족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 지음 | 또 하나의 문화 | 1만5천원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가족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항상 웃음이 넘치는 화목하고 정겨운 가족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가족'이란 명사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무겁고 힘든 관계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족간의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흔히 보험에 비유되는,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가족이라면, 그 관계는 과연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는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자기 고백적인 글을 통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 부모 중 한쪽이 없는 것만으로도 비정상적인 가족이라는 편견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색하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가족이란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사람들은 행복한 가족을 상상하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지만, 그것도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 다른 형태의 함께 살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자녀가 성장해 떠나거나 배우자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 등의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다.

가족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다른 방식으로 함께 살기' 화두 제시

특정한 형태의 가족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고 그이외의 사람들에게 냉랭하고 배타적인 혈연주의로 뭉친 공동체만을 인정하는 사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요구를 당연시한다. 이 책의 필자들은 우리가 정답이라 알고 있는 가족의 모습에 얽매이지 않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이기적이고 타산적이며 방어적인 심성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더불어 사는 연습을 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면, 함께 밥을 해먹고 잠을 자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야말로 많은 연습이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혼의 증가, 가족관계의 단절, '패륜적인' 범죄의 증가 등을 보면서 사람들은 가족의 위기를 염려하지만, 위기에 있는 것은 단지 의무감만 남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는 가족이다. 사람들은 의무감에 버거워하면서도 같이 살 뿐인 관계, 아플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줘야 하는 관계 이상의 친밀감을 갈망하고 있다. 그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정답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정답은 없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힘들지만 보다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닐까?

이 책은 이처럼 다른 방식으로 함께 살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풍부한 고민거리를 던져줄 것이다.

■**임태연** (한라대 여성학과 강사)

불교서적전문출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수행길에서 만나는 스님들은 모두가 선지식이다"

스님이야기

홀로 피었다가 홀로 지지만 그 향기만은 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전해지는 들꽃같은 스님들의 수행일화

이 책은 스님들의 수행과 일상사를 여과없이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님들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들의 다양한 수행 이야기가 감칠맛나는 문체에 녹아 있어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청정한 스님들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해 주는 힘이며,
이러한 스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속인들은 살 맛이 나고 희망을 갖게 된다.
- 현대불교신문 기사 중에서 -

시국 스님 외 14인 지음 | 신국판 | 448쪽 | 12,000원 | 여시아문

책에 나오는 스님들 - 무소유의 큰 스승 **법정** 스님 / 20년 장좌불와 **자유** 스님 / 사찰안내의 '원조' **인암** 스님 / 분별 · 시비심 끊어진 **정화** 스님 /집착하지도 떠나지도 않는 **현장** 스님 / 열정의 인권운동가 **진관** 스님 / 한결같은 인욕 · 하심 **지월** 스님 / 수행자로서의 투철한 삶 **홍법** 스님 / 후덕한 주지 **혜성** 스님 / '산 거지' 자처 **정우** 스님 / 햇차 같이 샤프한 **여연** 스님 / 병든 처사 헌신적으로 돌본 **묘운** 스님 / 옷 한 벌이 전 재산 **진공** 스님 / 진정한 무술 고수 **대오** 스님 / '가야산 호랑이' **정원** 스님 / 냉정함과 따뜻함의 조화 **종진** 스님 / '화엄신장' 같은 고참 수좌 **중천** 스님 / 효심 지극한 **현진** 스님 / 중앙승가대 정규大 인가 앞장 **금정** 스님 / 理事 두루 밝은 **원타** 스님 / 불교문학 발전 견인차 **혜관** 스님 / 생명나누기 실천교육 20년 **종실** 스님 / 뜨거운 피 · 절절한 가슴 **혜조** 스님 / 영원한 선지식 **고송** 스님 / '뿌리깊은 나무' **종범** 스님 / '공포의 목침할배' **경하** 스님 / 결제 땐 면벽, 해제 땐 기도 **법현** 스님 / 해조음처럼 편안한 **하운** 스님 / 가슴 뜨거운 소신파 **현담** 스님 / 운문인들의 귀감 **홍문** 스님 / 운문도량 '지킴이' **일진** 스님 / 주관 뚜렷한 노력파 **혜원** 스님 / 감각 뛰어나고 재주 많은 **정안** 스님 / 물 흐르듯 거침없는 말과 글 **지륵** 스님 / 방황과 갈등 '공부'로 승화 **불굴** 스님 / 해제 · 결제 따로 없는 **일선** 스님 /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 **향산** 스님 / 효성 지극한 묵언수좌 **환기** 스님 / 소탈해서 더욱 빛나는 **현봉** 스님 / 자애로운 눈빛, 맑은 미소 **효명** 스님 / 따뜻한 마음, 깔끔한 강의 **일초** 스님 / 장좌불와 · 일종식 계속 **금산** 스님 / '불교문화유산 지킴이' **홍선** 스님 / 나서면 '만사형통' **자승** 스님 / 농사짓고 공부하고 **관문** 스님 / 병자의 슬픔 · 고통 함께 **지홍** 스님 / 사회변혁운동 앞장 **유묵** 스님 / '1등 포교사' **홍도** 스님 / 전형적인 수행자로 일관 **서암** 스님 / 남다른 문학적 재능 **원철** 스님 / 전법제일 '부루나'의 후예 **현원** 스님 / 굳 포교 헌신 **성광** 스님 / 산새 · 짐승들과 교감 **정호** 스님 / 언제나 반듯한 수행자 **현덕** 스님 / 끝없이 차 공양 **우진** 스님 / '이상적 도심포교당' 계획 **지태** 스님 / 미소 잃지 않는 '자비보살' **만초** 스님 / 서릿발 같은 기상 **현근** 스님 / 90세에도 어디든 가서 법문 **호명** 스님 / 호거산처럼 넉넉한 품 **명성** 스님 / 기도정진과 이타행 **형문** 스님 / 병고를 인욕으로 승화 **지우** 스님 / 늘 초발심으로 정진 **설송** 스님 / 삶의 따스함 가르쳐 준 **법인** 스님 / 오롯이 한 길 매진 **미산** 스님 / 자상한 탁마의 도반 **상목** 스님 / 덕숭산 가풍의 계승자 **보리** 스님 / 도시로 입산한 '만능인' **덕신** 스님 / 수덕사 '터줏대감' **영수** 스님 / 당당한 출가인의 표상 **휘광** 스님 / 언제나 젊은 마음자리 **수암** 스님 / 굴삭기 운전하며 불사 **금강** 스님 / 급함 · 욕심 · 시비 없는 **성전** 스님 / 깐깐함과 자상함의 조화 **효명** 스님 / 마음까지도 다 주는 **석우** 스님 / 속명을 불명으로 **대석** 스님 / 계으름 허용 않는 **지산** 스님 / 만날 때마다 깊어지는 수행 **대공** 스님 / '몸 아픈것도 내 탓' **영호** 스님 / '수행자의 여법함' 보여준 **원타** 스님 / 학문에 남다른 열정 **성원** 스님 / 만날 때마다 순수함 더하는 **영각** 스님 / '불사佛事 제일' **지문** 스님 / 도심포교의 베테랑 **희휴** 스님 / 청소년 포교 중요성 알려 준 **목주** 스님